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0호 [무제 제23292호] 주제99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경북도예술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북도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예술단 예술인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 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은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

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도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인인 천철해동지, 리명수동지와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오수용동지,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효표동지를 비롯한 도와 주요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단은 여성 3중창 《만경대의 노래》, 여성민요독창 《희명의 봄》, 가무 《전선길의 뱀죽세》, 무용 《김철의 불길》, 여성고음독창 《사회주의라 원일세》, 바이올린 2중주와 방창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바이올린제주 《돌파하라 최첨단들》, 혼성 2중창과 합창 《주체철 제일이야》, 여성 3중창과 합창 《더 높이 더 빨리

리》, 혼성 5중창과 합창 《당의 기치 따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혁명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랑만,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당의 품속에서 혁명적예술집단으로 자라난 예술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시대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을 보면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헤쳐며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였으며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강성대국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불도가나마냥 끓어번져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예술인들의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북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북도예술단이 5대혁명기극창조에서 구현되였던 우리 당의 독창적인 창작원칙과 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문화에

술의 참된 창조자, 견결한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자주적으로 살아나는데 필요한 참다운 사상과 도덕, 참다운 문화를 주는 것이 바로 주체예술의 기본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나서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함경북도예술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현지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고무격려해주시며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예술창조활동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3대혁명붉은기단위들이 늘어난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와 당 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내인 그 기세로 각 당조직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켜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금성리공장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하게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당과류, 병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펼쳐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여러차례나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리고 제품의 가치수를 250여가지로 높이고 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공창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생산건물들과 720여㎡의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을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게 일떠세우고 군중문화에활황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중앙원들이 혁명적기백과 랑만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게 하고있다.

평원리공공장 당조직에서는 천여점의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자료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게시하여놓고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창에서는 제봉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자체의 힘으로 피복가공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갖추어놓았다. 특히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 자력쟁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천㎡의 생산건물을 확장하고 동력계봉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을

확보하여 생산능력을 1.5배로 높였으며 군의 살림살이와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합숙과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태양열온실, 버섯생산기, 양어장 등 후반기지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중앙원들의 후방공급사업을 훨씬 개선하였다.

이밖에도 사리원전직공창에서는 정련회백공정을 완성하고 20여건의 창고고안을 받아들여 편직제품의 질을 높이고 지난 3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킬때 넘쳐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청진기초식품공장, 보통강직로공장, 선봉우공장, 사리원담공장 비육직장 등 많은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때 대한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불길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대중운동의 생활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김철소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

북방의 대야금지 김철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철강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21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철강재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창, 기업소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발전이 적극 이바지하는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3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여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기들이

많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해나갈 불타는 열정을 안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로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창조병이 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창모부의 일꾼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현행생산공정들을 과학기술적대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련합기업소에 꾸려진 4.15기술혁신동맹대령을 핵심으로 하여 각 직장, 단위들마다에서 실정에 맞는 기술혁신안들을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용광로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과학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직장에서는 2호용광로에 합리적인 송풍기술을 도입하여 많은 연료를 절

석탄생산성과 끊임없이 확대

특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특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특장청년련방, 봉창지구탄광, 명학탄광, 통산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당창건 65돐을 정식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석탄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 드높은

열의밑에 석탄생산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책임일꾼들은 아페탄광들의 여러 갱들에 령량을 집중하여 기본굴진을 힘있게 내밀어 예비제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석탄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게 하고있다. 일꾼들은 막강하게 당부해나가고있다. 참모부에서는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심직무를 생산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서 찾고 탄차와 압축기배관, 전동기를 자체로 수리하여 석탄생산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그리하여 1갱, 6갱, 5갱을 비롯한 여러 갱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석탄생산에서 실적을 울리며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봉창지구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자력쟁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

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3갱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막강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당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열의로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6갱의 탄부들도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일꾼들은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를 맞게 탄차, 동발나무를 비롯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명학탄광, 통산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당창건 65돐을 자랑스런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특기기자 리혁철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지와 보람이 생산자들의 얼굴마다에 차넘친다. -평양전부공장에서- 신 총 력 적음

필승의 신념이 새기며 불타는 혁명적열풍이 거세게 불어날 것이다

영광의 나날에 꽃피워 주신 빛나는 삶

평범한 문필가였던 리승조동무의 성장에 어려웠는 자애로운 사랑

1970년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사본들로 충만된 참으로 뜻깊은 년대였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전군제사와 더불어 온 나라에 속도전의 기상이 도도히 나뉘었다.

황철의 자동화, 금골의 기적, 은골의 대형장거리벨트르베아수송선... 혁명의 북소리,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강산에 짙게 메아리치는 속에 도처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온 나라가 흥성거렸다.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투사, 창조와 건설의 능수들의 대오로 무성한 숲을 이

룬 비친 시대적배경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두들 사람의 품에 안아 혁명가로, 열의인으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감동깊이 어려웠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나날 들끓는 전투장들마다에서 힘있는 방승정론으로 맹활약한 리승조동무의 극적인 삶의 갈피갈피를 통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재능도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의 품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걸맞게 된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 격동적인 나날에 있던 일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이장군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보다 더 뜨겁고 엄숙한 신언이 과연 력사의 어느 시대에 있었던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 당의 리승을 앞장에서 꽃피워나가는 공저로 하여 리승조동무는 내내 하늘을 날듯 한 흥분을 휩싸여있었다.

이런 그의 성장의 걸음걸음을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로 이끌어주시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황철에서 어느 한 직장에 대한 종합적 자동화가 완성되어 전국적인 방시상학을 준비하고있던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승조동무에게 방승정론을 하나 잘 준비하여 방시상학에 참가한 일군들에게 들려줄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었다.

특별한 믿음을 받아안은 리승조동무의 가슴은 더없이 설레어있었다.

이것에서 각별히 판심하시는 글의 종자는 무엇이고 정책적대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방시상학의 날이 다가올수록 그는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 바래있었다.

그러면 그 성과를 고스란히 전사들에게 돌려주시기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는 이 고민을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

가 온 나라에 타버리게 하자!»는 이렇게 달고되었다.

방승정론에 대한 반향은 폭풍같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방승정론이 확실히 힘있고 감동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선전선동부보를 통하여 들어온 자료를 보니가 옛날에는 때로 울리고 때로 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글로 일을 시킨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사업의 힘, 사상전의 위력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곧 리승조동무의 불타는 정열의 산물인 그 방승정론을 칭찬하시었다.

방승정론을 다 들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승조동무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며 확실히 그 동무는 글을 잘 쓴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가슴겨운 말씀을 하시었다.

《이 방승정론을 듣고서야 어떻게 가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떨쳐나설것입니다. 방승정론에 대한 청취사업을 내가 직접 조직하겠습니다.》

너무도 분에 넘치는 칭하의 말씀이었다. 자신께서 친히 주신 글의 종자를 가지고 쓴 글이 아니란가.

그러면 그 성과를 고스란히 전사들에게 돌려주시기위해.

다합들은 각각과 흥분, 매혹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리승조 동무는 웃음을 머미고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우러러 삼고 고마움의 인사를 정히 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으실 때마다 고 열속에서 최물을 뽑는 용해공들의 일손을 도우시며 자동화의 절박성을 몸소 체험하신 뜻깊은 철의 기적, 그들을 두고 차마 발길을 돌리지 어려우시며 《대 바를 한 줄을 용해장에 두고 갑니다.》라는 의미있는 말씀을 남기신 황철.

아버이장군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좀 놓인다고, 정말 기쁘고, 5차 당대회에서 내가 3대기출형문을 제기하였는데 빛나는 현실로 꽃피었다고 그리고 못내 기뻐하신 황철의 자동화.

그로부터 3대기출형문의 첫 발판으로 된 황철 자동화의 갈피에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한 평범한 문필가에게 기울으신 이런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로 감동깊게 수놓아져있는것이다.

리승조동무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 주시었다.

《아버이장군님! 저같은것이 무엇이라고 이런 뜨거운 은총을...》

리승조동무의 말끝은 흐느낌속에 젖어 들었다.

투쟁의 길에서는 불굴의 정신력을 넘겨주고 생활의 길에서는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 보살피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사랑.

하늘보다 더 넓은 품에 안겨사는 영광과 긍지가 끝없이 북받쳐올라 그는 끝내 세간 오열을 터지고야말았다. ...

보통날에는 늘 글과 책에 몰두했던 리승조동무가 짙한 있으면 안해와 자식들에게 곱씹어 한 말이었다.

《한생을 인간적 감동있게 사는 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 변신없이 사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장군님의 품에 안겨 빛나는 삶을 꽃피워온 수천수만 혁명전사들의 인생이 말하여주는 력사의 정의이다. 그 길은 내가 걸어왔고 또 우리가 걸어가 대를 이어 걸어가야 할 신념의 길, 량심의 길이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의 품에 안겨 재능있는 문필가로 성장한 리승조동무가 남긴 생의 메아리이다.

이런 신념과 의지로 삶의 순간순간을 수놓아온 리승조동무였기에 생의 마감도 순결한 의리의 길에서 빛나게 장식할수 있었던것이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리승조동무는 어느 한 기업소에서 시련의 흔적을 떨치기 위하여 새로운 대고조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대의가 되며 방승정론을 쓰기로 결심하고 달려붙었다. 이것은 그자신이 스스로 받아안은 량심의 과제였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해당 일군들과 노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실례를 묘해하며 기업소안팎을 돌아다니고 그 뒷안... 아버지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고지를 혁명전사로서 지켜온 중지높은 전통을 가지고있는 기업소로 들어가 마땅히 우리 장군님께서 신하하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도 앞장서 달려나갈데 대한 내용의 130여매에 달하는 방승정론은 참으로 높은 수준에서 집필되었다.

그러면 그 방승정론이 리승조동무의 유고작이 될까 어이 없으리나.

마지막유고작을 펴낸 리승조동무가 원고지를 안고 책상앞에서 숨을 거두었던것이다.

그러나 전진시찰의 길에서 리승조동무가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받은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철의 자동화와 은골광산 대형장거리벨트르베아공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나날에 방승정론을 통해 동무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리고 그의 유고작인 방승정론을 북돋아 해방 기업소로 동무에게 청취시켜 실패를 해도록 해주신 한평생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혁명전사들모두의 삶을 보람으로 넘쳐나게 하고 혁명의 길에서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불발의 꽃처럼 활짝 피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의 품, 태양보다 더 광명한 열기로 혁명이라는 대지를 위대한 사랑의 화원으로 만만하게 가꾸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품에 안기기에 평범한 문필가였던 리승조동무의 인생도 영광과 행복으로 빛날수 있었던것이다.

리승조동무, 문필가로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얼마 많지 않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의 순간순간을 매혹과 열정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아버지장군님의 품, 가장 평범한 전사도 혁명동지로 불러주시며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생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길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 영광과 행복을 누리신 전사들의 생애는 영원하다는 조선혁명의 동지애의 철학.

이 위대한 전리를 단사림의 가슴에 새겨주며 그는 오늘도 친한 대오가 승리의 중심지높이 있고있는 강성대국로의 대로를 우리와 함께 가고있다.

본사기자 량 순

배 후 파

흥 모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끝난 직후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이런 보도를 내리었다.

《조선에서 공업화 완수, 련달이 인간관 전향에로!》

《사람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할때 대한 과제를 일정에 올린 조선로동당의 활동은 특별히 주목할만 하다.》...

하나같이 경탄에 찬 문장이었다.

온 나라를 환희에 들끓게 하던 그무렵의 어느날 리승조동무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

세상을 뒤트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갖는 사연이었다.

주제59 (1970)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지방에서 당대회보고작성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진지한 담화를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깊은 감회에 잠겨 말씀하시었다.

이 땅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고 보니 40여년전 어머니뉘로부터 아버지장군께서 쓰신던 투쟁의 전통을 넘겨받던 일이 생각나오, 우리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해방하고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민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였소.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당대회보고에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려고 하오. 사람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가운데서도 가장 큰 선물로 될것이지 않겠나...

표정을 지으시며 리승조동무는 자신께서 잘 아는 동무이라고 매우 반가워하시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로 활동하면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자주 모시는 영광을 지녔으며 공작기계 1만대 생산전투의 나날 회현에 달려나가 사람들의 심장을 뚫어주는 힘있는 방승정론활동으로 소문을 내어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리승조동무였었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리승조동무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서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만 방승정론을 쓰는 보통문필가에 지나지 않는 전사를 잊지 않으시는 웅심깊은 아버지 그 사랑,

금시 터질듯 부풀어오르는 심장, 하늘을 훨훨 날고싶은 충동...

리승조동무는 가슴벅차게 차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아, 온 세상이 흥모하여 높이 우러르는 그에게서 나같이 평범한 문필가도 알고계시었구나!)

온 세상이 울리도록 이렇게 웨치고있지만 뜨거운 눈물만은 그의 두볼에서 닦고 소리없이 흘러내리었다.

황철의 밤하늘을 물들이는 용무늬의 시벨린 불빛이 그의 가슴속에서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는것만 같았다.

우리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간절한 소원을 안으신 그에게서는 이방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실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향하는 이런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의 재능과 열정을 한껏 폭발시켜주었다.

리승조동무의 인생에서 정신적안양의 나날이 흘렀다.

들은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뛸듯하게 하는 그의 방승정론이 자동화의 열기로 달아오른 황철의 구배길에 메달과 같이 울려퍼지었다.

병드지와 술결을 이는 혁명적문필가로서의 그의 참다운 인생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참다운 혁명가가 태어나고 싶어 성장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이 있음으로 하여 리승조동무는 창조적지혜와 재능의 나뭇를 활짝 펼칠수 있었다.

황철에서의 자동화의 나날은 리승조동무에게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매혹과 흥도의 정으로 심장의 피가 놀려대 한 격동적인 시기였다.

오래된 소걸로직장의 자동화가 어렵고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을 때였다.

일정하게 라당성이 있는 의견들이었다.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쓰는 돈은 재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보는 원칙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넓은 공장에 대한 자동화는 오직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리승조동무의 요구가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할수 있다!

이런 위대한 정치리념으로 온 황철을 쇠물보다 더 끓여버리게 하신

시간 리승조동무의 머릿에서 우리가 울고 눈앞에서는 섬망이 번쩍하는것만 같았다.

온몸에 눈부시게 발산하는 햇빛을 받아안는 심정이였다.

아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나라 더욱 강렬하였다.

그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리승조동무는 이를떠를 꼬박 밤새 100여매에 달하는 방승정론을 집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방승정론 《황철에 떠오른 전면적자동화의 부화

아버이수령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좀 놓인다고, 정말 기쁘고, 5차 당대회에서 내가 3대기출형문을 제기하였는데 빛나는 현실로 꽃피었다고 그리고 못내 기뻐하신 황철의 자동화.

그러면 그 성과를 고스란히 전사들에게 돌려주시기위해.

다합들은 각각과 흥분, 매혹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리승조 동무는 웃음을 머미고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우러러 삼고 고마움의 인사를 정히 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으실 때마다 고 열속에서 최물을 뽑는 용해공들의 일손을 도우시며 자동화의 절박성을 몸소 체험하신 뜻깊은 철의 기적, 그들을 두고 차마 발길을 돌리지 어려우시며 《대 바를 한 줄을 용해장에 두고 갑니다.》라는 의미있는 말씀을 남기신 황철.

아버이수령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좀 놓인다고, 정말 기쁘고, 5차 당대회에서 내가 3대기출형문을 제기하였는데 빛나는 현실로 꽃피었다고 그리고 못내 기뻐하신 황철의 자동화.

그로부터 3대기출형문의 첫 발판으로 된 황철 자동화의 갈피에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한 평범한 문필가에게 기울으신 이런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로 감동깊게 수놓아져있는것이다.

리승조동무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 주시었다.

《아버이장군님! 저같은것이 무엇이라고 이런 뜨거운 은총을...》

리승조동무의 말끝은 흐느낌속에 젖어 들었다.

투쟁의 길에서는 불굴의 정신력을 넘겨주고 생활의 길에서는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 보살피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사랑.

하늘보다 더 넓은 품에 안겨사는 영광과 긍지가 끝없이 북받쳐올라 그는 끝내 세간 오열을 터지고야말았다. ...

보통날에는 늘 글과 책에 몰두했던 리승조동무가 짙한 있으면 안해와 자식들에게 곱씹어 한 말이었다.

《한생을 인간적 감동있게 사는 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 변신없이 사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장군님의 품에 안겨 빛나는 삶을 꽃피워온 수천수만 혁명전사들의 인생이 말하여주는 력사의 정의이다. 그 길은 내가 걸어왔고 또 우리가 걸어가 대를 이어 걸어가야 할 신념의 길, 량심의 길이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의 품에 안겨 재능있는 문필가로 성장한 리승조동무가 남긴 생의 메아리이다.

이런 신념과 의지로 삶의 순간순간을 수놓아온 리승조동무였기에 생의 마감도 순결한 의리의 길에서 빛나게 장식할수 있었던것이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리승조동무는 어느 한 기업소에서 시련의 흔적을 떨치기 위하여 새로운 대고조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대의가 되며 방승정론을 쓰기로 결심하고 달려붙었다. 이것은 그자신이 스스로 받아안은 량심의 과제였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해당 일군들과 노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실례를 묘해하며 기업소안팎을 돌아다니고 그 뒷안... 아버지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고지를 혁명전사로서 지켜온 중지높은 전통을 가지고있는 기업소로 들어가 마땅히 우리 장군님께서 신하하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도 앞장서 달려나갈데 대한 내용의 130여매에 달하는 방승정론은 참으로 높은 수준에서 집필되었다.

그러면 그 방승정론이 리승조동무의 유고작이 될까 어이 없으리나.

마지막유고작을 펴낸 리승조동무가 원고지를 안고 책상앞에서 숨을 거두었던것이다.

그러나 전진시찰의 길에서 리승조동무가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받은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철의 자동화와 은골광산 대형장거리벨트르베아공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나날에 방승정론을 통해 동무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리고 그의 유고작인 방승정론을 북돋아 해방 기업소로 동무에게 청취시켜 실패를 해도록 해주신 한평생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혁명전사들모두의 삶을 보람으로 넘쳐나게 하고 혁명의 길에서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불발의 꽃처럼 활짝 피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의 품, 태양보다 더 광명한 열기로 혁명이라는 대지를 위대한 사랑의 화원으로 만만하게 가꾸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품에 안기기에 평범한 문필가였던 리승조동무의 인생도 영광과 행복으로 빛날수 있었던것이다.

리승조동무, 문필가로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얼마 많지 않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의 순간순간을 매혹과 열정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아버지장군님의 품, 가장 평범한 전사도 혁명동지로 불러주시며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생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길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 영광과 행복을 누리신 전사들의 생애는 영원하다는 조선혁명의 동지애의 철학.

이 위대한 전리를 단사림의 가슴에 새겨주며 그는 오늘도 친한 대오가 승리의 중심지높이 있고있는 강성대국로의 대로를 우리와 함께 가고있다.

본사기자 량 순

주제64 (1975)년 6월 23일, 은골광산 대형장거리벨트르베아수송선 이 비야흐로 조업을 앞둔 날이었다.

은골광산의 바르쳐리는 자동화된 황철에서의 중대되는 최물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명목이었다.

몇백m에 달하는 굴뚝기, 높고 험한 산 줄기들을 넘어 끌어와야 하는 충전선, 새로 건설하여야 할 파쇄장과 전송기실... 엄청난 공사량을 놓고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을 때 신심에 넘치신 어조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자 결심해서 못했던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영웅적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이 있지 않겠나, 신심을 가지고 은골광산 벨트르베아를 우리 시대의 대기술비치장조물로 만들어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품소 밝히시신 거창한 작전이였다.

위대한 사랑은 기적을 낳아 마침내 금산포의 거친 날바다우에 대형장거리벨트르베아가 용자를 파시하게 되었었다.

하루에 무려 수만의 버력을 서해바다로 실어내는 거대한 시설, 원격조종으로 움직이는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 파도소리 소연하게 들려오는 전방에서 그날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 시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리승조동무였다.

그의 열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몇개월전에 보내주신 고급승용차가 있었다.

사랑의 승용차를 어루살고 또 살펴보는 그의 눈가에는 어느덧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과 잇닿아있는 지나온 추억의 나날들이 삼삼히 돌이켜지기에모이였다.

나라였던 그 세월 제집도 없애 남의 집 뜰방에서 태어난 그녀였다. 딸보이아

가 온 나라에 타버리게 하자!»는 이렇게 달고되었다.

방승정론에 대한 반향은 폭풍같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방승정론이 확실히 힘있고 감동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선전선동부보를 통하여 들어온 자료를 보니가 옛날에는 때로 울리고 때로 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글로 일을 시킨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사업의 힘, 사상전의 위력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곧 리승조동무의 불타는 정열의 산물인 그 방승정론을 칭찬하시었다.

방승정론을 다 들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승조동무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며 확실히 그 동무는 글을 잘 쓴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가슴겨운 말씀을 하시었다.

《이 방승정론을 듣고서야 어떻게 가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떨쳐나설것입니다. 방승정론에 대한 청취사업을 내가 직접 조직하겠습니다.》

너무도 분에 넘치는 칭하의 말씀이었다. 자신께서 친히 주신 글의 종자를 가지고 쓴 글이 아니란가.

그러면 그 성과를 고스란히 전사들에게 돌려주시기위해.

다합들은 각각과 흥분, 매혹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리승조 동무는 웃음을 머미고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우러러 삼고 고마움의 인사를 정히 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으실 때마다 고 열속에서 최물을 뽑는 용해공들의 일손을 도우시며 자동화의 절박성을 몸소 체험하신 뜻깊은 철의 기적, 그들을 두고 차마 발길을 돌리지 어려우시며 《대 바를 한 줄을 용해장에 두고 갑니다.》라는 의미있는 말씀을 남기신 황철.

아버이수령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좀 놓인다고, 정말 기쁘고, 5차 당대회에서 내가 3대기출형문을 제기하였는데 빛나는 현실로 꽃피었다고 그리고 못내 기뻐하신 황철의 자동화.

그로부터 3대기출형문의 첫 발판으로 된 황철 자동화의 갈피에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한 평범한 문필가에게 기울으신 이런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로 감동깊게 수놓아져있는것이다.

리승조동무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 주시었다.

《아버이장군님! 저같은것이 무엇이라고 이런 뜨거운 은총을...》

리승조동무의 말끝은 흐느낌속에 젖어 들었다.

투쟁의 길에서는 불굴의 정신력을 넘겨주고 생활의 길에서는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 보살피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사랑.

하늘보다 더 넓은 품에 안겨사는 영광과 긍지가 끝없이 북받쳐올라 그는 끝내 세간 오열을 터지고야말았다. ...

보통날에는 늘 글과 책에 몰두했던 리승조동무가 짙한 있으면 안해와 자식들에게 곱씹어 한 말이었다.

《한생을 인간적 감동있게 사는 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 변신없이 사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장군님의 품에 안겨 빛나는 삶을 꽃피워온 수천수만 혁명전사들의 인생이 말하여주는 력사의 정의이다. 그 길은 내가 걸어왔고 또 우리가 걸어가 대를 이어 걸어가야 할 신념의 길, 량심의 길이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의 품에 안겨 재능있는 문필가로 성장한 리승조동무가 남긴 생의 메아리이다.

이런 신념과 의지로 삶의 순간순간을 수놓아온 리승조동무였기에 생의 마감도 순결한 의리의 길에서 빛나게 장식할수 있었던것이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리승조동무는 어느 한 기업소에서 시련의 흔적을 떨치기 위하여 새로운 대고조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대의가 되며 방승정론을 쓰기로 결심하고 달려붙었다. 이것은 그자신이 스스로 받아안은 량심의 과제였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해당 일군들과 노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실례를 묘해하며 기업소안팎을 돌아다니고 그 뒷안... 아버지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고지를 혁명전사로서 지켜온 중지높은 전통을 가지고있는 기업소로 들어가 마땅히 우리 장군님께서 신하하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도 앞장서 달려나갈데 대한 내용의 130여매에 달하는 방승정론은 참으로 높은 수준에서 집필되었다.

그러면 그 방승정론이 리승조동무의 유고작이 될까 어이 없으리나.

마지막유고작을 펴낸 리승조동무가 원고지를 안고 책상앞에서 숨을 거두었던것이다.

그러나 전진시찰의 길에서 리승조동무가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받은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철의 자동화와 은골광산 대형장거리벨트르베아공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나날에 방승정론을 통해 동무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리고 그의 유고작인 방승정론을 북돋아 해방 기업소로 동무에게 청취시켜 실패를 해도록 해주신 한평생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혁명전사들모두의 삶을 보람으로 넘쳐나게 하고 혁명의 길에서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불발의 꽃처럼 활짝 피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의 품, 태양보다 더 광명한 열기로 혁명이라는 대지를 위대한 사랑의 화원으로 만만하게 가꾸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품에 안기기에 평범한 문필가였던 리승조동무의 인생도 영광과 행복으로 빛날수 있었던것이다.

리승조동무, 문필가로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얼마 많지 않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의 순간순간을 매혹과 열정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아버지장군님의 품, 가장 평범한 전사도 혁명동지로 불러주시며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생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길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 영광과 행복을 누리신 전사들의 생애는 영원하다는 조선혁명의 동지애의 철학.

이 위대한 전리를 단사림의 가슴에 새겨주며 그는 오늘도 친한 대오가 승리의 중심지높이 있고있는 강성대국로의 대로를 우리와 함께 가고있다.

본사기자 량 순

삶 의

배 아 리

아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지방에서 당대회보고작성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진지한 담화를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깊은 감회에 잠겨 말씀하시었다.

이 땅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고 보니 40여년전 어머니뉘로부터 아버지장군님께서 쓰신던 투쟁의 전통을 넘겨받던 일이 생각나오, 우리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해방하고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민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였소.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당대회보고에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려고 하오. 사람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가운데서도 가장 큰 선물로 될것이지 않겠나...

우리 당의 핵심부대인 황철의 로동계급이 당이 추구하는 자동화의 불화를 먼저 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황철에 전면적자동화의 첫 불길을 지펴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

리승조동무의 가슴은 무한한 매혹의 감정으로 불덩어리불 안은 심정이였다.

일편단심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충정의 세계에 눈이 침취되었었다.

자동화, 말만 외워도 심장이 쿵쿵 뛸듯하였다. 거창한 그 사업에 맘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싶은 열망이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주저없이 배낭을 지고 현지로 달려나갔다.

이후를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철의 자동화를 위한 방승정론활동을 하고있는 리승조동무에게 대하여 로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한

주제64 (1975)년 6월 23일, 은골광산 대형장거리벨트르베아수송선 이 비야흐로 조업을 앞둔 날이었다.

은골광산의 바르쳐리는 자동화된 황철에서의 중대되는 최물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명목이었다.

몇백m에 달하는 굴뚝기, 높고 험한 산 줄기들을 넘어 끌어와야 하는 충전선, 새로 건설하여야 할 파쇄장과 전송기실... 엄청난 공사량을 놓고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을 때 신심에 넘치신 어조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자 결심해서 못했던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영웅적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이 있지 않겠나, 신심을 가지고 은골광산 벨트르베아를 우리 시대의 대기술비치장조물로 만들어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품소 밝히시신 거창한 작전이였다.

위대한 사랑은 기적을 낳아 마침내 금산포의 거친 날바다우에 대형장거리벨트르베아가 용자를 파시하게 되었었다.

하루에 무려 수만의 버력을 서해바다로 실어내는 거대한 시설, 원격조종으로 움직이는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 파도소리 소연하게 들려오는 전방에서 그날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 시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리승조동무였다.

그의 열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몇개월전에 보내주신 고급승용차가 있었다.

사랑의 승용차를 어루살고 또 살펴보는 그의 눈가에는 어느덧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과 잇닿아있는 지나온 추억의 나날들이 삼삼히 돌이켜지기에모이였다.

나라였던 그 세월 제집도 없애 남의 집 뜰방에서 태어난 그녀였다. 딸보이아

삶 의

배 아 리

아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지방에서 당대회보고작성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진지한 담화를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깊은 감회에 잠겨 말씀하시었다.

이 땅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고 보니 40여년전 어머니뉘로부터 아버지장군님께서 쓰신던 투쟁의 전통을 넘겨받던 일이 생각나오, 우리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해방하고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민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였소.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당대회보고에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려고 하오. 사람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가운데서도 가장 큰 선물로 될것이지 않겠나...

우리 당의 핵심부대인 황철의 로동계급이 당이 추구하는 자동화의 불화를 먼저 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황철에 전면적자동화의 첫 불길을 지펴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

리승조동무의 가슴은 무한한 매혹의 감정으로 불덩어리불 안은 심정이였다.

일편단심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충정의 세계에 눈이 침취되었었다.

자동화, 말만 외워도 심장이 쿵쿵 뛸듯하였다. 거창한 그 사업에 맘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싶은 열망이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주저없이 배낭을 지고 현지로 달려나갔다.

이후를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철의 자동화를 위한 방승정론활동을 하고있는 리승조동무에게 대하여 로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한

삶 의

배 아 리

아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지방에서 당대회보고작성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진지한 담화를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깊은 감회에 잠겨 말씀하시었다.

이 땅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고 보니 40여년전 어머니뉘로부터 아버지장군님께서 쓰신던 투쟁의 전통을 넘겨받던 일이 생각나오, 우리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해방하고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민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였소.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당대회보고에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려고 하오. 사람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가운데서도 가장 큰 선물로 될것이지 않겠나...

우리 당의 핵심부대인 황철의 로동계급이 당이 추구하는 자동화의 불화를 먼저 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황철에 전면적자동화의 첫 불길을 지펴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

리승조동무의 가슴은 무한한 매혹의 감정으로 불덩어리불 안은 심정이였다.

일편단심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충정의 세계에 눈이 침취되었었다.

자동화, 말만 외워도 심장이 쿵쿵 뛸듯하였다. 거창한 그 사업에 맘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싶은 열망이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주저없이 배낭을 지고 현지로 달려나갔다.

이후를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철의 자동화를 위한 방승정론활동을 하고있는 리승조동무에게 대하여 로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한

<h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h2> <h3>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h3>	
방코크 라이 왕국 국왕 부미벨 아들이야테즈하 나는 폐하의 생일과 타이왕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폐하가 건강할것과 보다 큰 귀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12월 4일 평양	까리카스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각하 나는 최근 귀국의 수도와 지방의 여러 지역들에서 여러날 동안 계속된 무더기비로 인명피해와 물질적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가 하루빨리 큰물피해의 후과를 가지고 리재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12월 3일 평양



가슴깊이 새기고있는 당시자들 본사기자 장정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연평도 주변 우리측 해역에 대해 무모한 불질을 하였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은 남조선피괴배당은 교훈을 찾을 대신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도발과 전쟁책동에 더욱 미쳐달라고 한다.
피괴들은 연평도포적사건의 포연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미핵항공포합전단을 서해에 끌어들여 미국과 함께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광범적으로 벌린데 이어 가까운 시일안에 또다시 미국핵잠수함을 비롯한 미7함대의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대규모해상연합훈련을 벌여놓으려 하고있다.
12월 6일부터는 남조선의 동해와 서해, 남해의 무려 29곳에서 일제히 사격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여기에는 우리 코앞의 서해 5개

섬 가운데 하나인 대청도도 포함되어 있다.
피괴들이 도발에 얼마나 피눈이 되었는가를 아는것은 연평도에서 다시금 전면 도발때와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측 명해를 향해 포사격을 강행하겠다고 떠들고있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련장로케트와 미사일을 비롯한 최신풀기들을 연평도에 집중적으로 끌어들여 화력과 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대외훈련을 한다고 북측을 속여놓고있다.
피괴군부호전장들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무력충돌을 유발한다. 다음 그것을 구실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이른바 《보복계획》이라 하는것을 이미 짜놓았으며 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발화점을 연결하고 있다. 피괴들의 도발적광란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불능의 국한상황으로 더욱

더 치달아오르고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변해지겠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우리는 지금 교도의 맹목과 자제를 유지하고있다.
북남사이엔 전면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조선반도뿐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내외여론과 유관측은 날로 험악하게 변지는 조선반도사태에 신중중추의를 돌리고 누가 도발자이고 누가 정의의 수호자인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과 피괴들은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어떤 파괴적후과를 빚어내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주제99 (2010)년 12월 5일 평 양

더 치달아오르고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변해지겠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우리는 지금 교도의 맹목과 자제를 유지하고있다.
북남사이엔 전면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조선반도뿐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내외여론과 유관측은 날로 험악하게 변지는 조선반도사태에 신중중추의를 돌리고 누가 도발자이고 누가 정의의 수호자인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과 피괴들은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어떤 파괴적후과를 빚어내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주제99 (2010)년 12월 5일 평 양

애국의 삶을 빛내여주는 위대한 사랑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
주제96 (2007)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한몸바쳐 싸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가 우리곁을 떠났다는 비보에 접하게 되시었다.
은 세상이 다 아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그로록 내세워주신 전사에 대한 생각으로 못내 가슴아파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명의를 돌아가시지 않음은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의 반신동상을 세우는데 한 응징같은 조치를 또다시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위하여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이며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의 반신동상이 평양의 통일거리에 건립되게 되었다.
조국통일상 금메달이 부각되어있는 화강석대물위에 34년간의 옥중교과가 숨배어있는 수인복차림으로 철쭉에 묶인 두주먹을 역세게 들어쥐고있는 리인모동지의 모습을 형상한 반신동상은 위대한 은인으로서 자애로운 사람의 화신인것에하여는 장군님의 뜨거운 응징속에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고있다.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
주제96 (2007)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한몸바쳐 싸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가 우리곁을 떠났다는 비보에 접하게 되시었다.
은 세상이 다 아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그로록 내세워주신 전사에 대한 생각으로 못내 가슴아파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명의를 돌아가시지 않음은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의 반신동상을 세우는데 한 응징같은 조치를 또다시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위하여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이며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의 반신동상이 평양의 통일거리에 건립되게 되었다.
조국통일상 금메달이 부각되어있는 화강석대물위에 34년간의 옥중교과가 숨배어있는 수인복차림으로 철쭉에 묶인 두주먹을 역세게 들어쥐고있는 리인모동지의 모습을 형상한 반신동상은 위대한 은인으로서 자애로운 사람의 화신인것에하여는 장군님의 뜨거운 응징속에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고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고수, 리행할것을 주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가 11월 28일 서울에서 범민련결정 20쪽에 조음하여 기념모임을 가지었다.
남조선의 범민련결정 20쪽기반사업추진위원회 성원들과 범민련 제1본부, 유급지역본부 대표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에서 보낸 편지가 소개되었다. 이어 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범민련

의 사상과 정신, 파업 등이 그대로 명시되어있다고 하면서 범민련이 앞으로는 남조선인들을 고무, 리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사이의 대화와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며 해외의 모든 통일애국력량의 연대연합으로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 활동할때 대해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리명박 《정부》의

대결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전면전쟁의 위기에 이른 오늘날의 현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통일운동을 더욱 절기차게 벌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6.15지시령의 이행에 《한라산과》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란시키고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실현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악법철폐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호소

남조선의 《보안법》 폐지국 민련대가 파효악법이 조각된지 6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단체는 《보안법》이 민주화와 인권을 말살하고 민족의 사상과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과거 일제시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받던 악법인 《보안법》이 민주화실현을 위한 민족의 투쟁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명을 떨쳤다고 단죄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리명박 《정권》 하에서 《보안법》에 의한 조작사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값높은 표창을 안겨주시며

주제79 (1990)년 6월 어느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준비정형을 로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해방 45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상을 제정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부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할때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이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명으로 수여하며 조국통일상수장자들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장을 수여할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다.
일 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값높은 표창을 안겨주시며
주제79 (1990)년 6월 어느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준비정형을 로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해방 45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상을 제정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부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할때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이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명으로 수여하며 조국통일상수장자들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장을 수여할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다.
일 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지원제외책동을 규탄

제일동포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외책동을 미루려는 일본당국의 책동을 규탄하여 11월 25일 일본중의원계 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조선고급학교 교장회, 조선학교 전국어머니회연락회, 전국조선고등학교 학생연락회 그리고 일본 각지의 조선학생 리사자들의 이름으로 된 긴급성명이 낭독되었다.
성명은 11월 24일 일본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지원제외책동을 규탄
제일동포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외책동을 미루려는 일본당국의 책동을 규탄하여 11월 25일 일본중의원계 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조선고급학교 교장회, 조선학교 전국어머니회연락회, 전국조선고등학교 학생연락회 그리고 일본 각지의 조선학생 리사자들의 이름으로 된 긴급성명이 낭독되었다.
성명은 11월 24일 일본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지원제외책동을 규탄
제일동포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외책동을 미루려는 일본당국의 책동을 규탄하여 11월 25일 일본중의원계 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조선고급학교 교장회, 조선학교 전국어머니회연락회, 전국조선고등학교 학생연락회 그리고 일본 각지의 조선학생 리사자들의 이름으로 된 긴급성명이 낭독되었다.
성명은 11월 24일 일본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지원제외책동을 규탄
제일동포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외책동을 미루려는 일본당국의 책동을 규탄하여 11월 25일 일본중의원계 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조선고급학교 교장회, 조선학교 전국어머니회연락회, 전국조선고등학교 학생연락회 그리고 일본 각지의 조선학생 리사자들의 이름으로 된 긴급성명이 낭독되었다.
성명은 11월 24일 일본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성이

조선반도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

반전평화를 위한 거세찬 투쟁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로골화되고있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지금 온 민족의 지친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날로 확대되고있는 내외호전광들의 전쟁장난사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끓여낸것이 할 조국땅우에 핵전쟁의 전염이 일어나고있고있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호전광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거세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담은 우리의 아량있고 성의있는 대외노력에 북침의 총포소리로 대담해나섰으니 얼마나 극악한 전쟁미지랄들이

전쟁의 근원 미군을 몰아내자

전쟁의 근원 미군을 몰아내자
주제79 (1990)년 6월 어느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준비정형을 로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해방 45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상을 제정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부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할때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이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명으로 수여하며 조국통일상수장자들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장을 수여할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다.
일 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일본대학교수들 조선학교지원제외책동을 요구

일본의 대학교수들이 조선학교에 지원제외책을 즉시 적용할것을 요구하여 11월 29일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요청문에서 문부과학성이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에 지원제외책을 적용할때 대한 수속을 정지할것을 정식발표할때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지원제외책용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오던것을 스스

조선학교지원제외책동을 요구
일본의 대학교수들이 조선학교에 지원제외책을 즉시 적용할것을 요구하여 11월 29일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요청문에서 문부과학성이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에 지원제외책을 적용할때 대한 수속을 정지할것을 정식발표할때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지원제외책용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오던것을 스스

조선학교지원제외책동을 요구
일본의 대학교수들이 조선학교에 지원제외책을 즉시 적용할것을 요구하여 11월 29일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요청문에서 문부과학성이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에 지원제외책을 적용할때 대한 수속을 정지할것을 정식발표할때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지원제외책용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오던것을 스스

조선학교지원제외책동을 요구
일본의 대학교수들이 조선학교에 지원제외책을 즉시 적용할것을 요구하여 11월 29일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요청문에서 문부과학성이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에 지원제외책을 적용할때 대한 수속을 정지할것을 정식발표할때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지원제외책용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오던것을 스스

반통일책동의 직접장발로

반통일책동의 직접장발로
피괴서출중양지방법원이 11월 29일 청년단체 공동대표 윤희숙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였다.
피괴법원은 그가 2008년 《정부》의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불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문제

부당한 판결에 항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
시하면서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희숙은 당국이 과거정력을 결코 잊지 않는것을 시인사회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누르고있다는것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윤희숙은 당국이 과거정력을 결코 잊지 않는것을 시인사회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누르고있다는것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윤희숙은 당국이 과거정력을 결코 잊지 않는것을 시인사회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누르고있다는것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윤희숙은 당국이 과거정력을 결코 잊지 않는것을 시인사회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누르고있다는것을 문제삼았다.

우리의 신념을 허물 수 없다

우리의 신념을 허물 수 없다
지금 남조선보수정부는 북남관계를 총지판산내고도 모자라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광범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로 몰아가고있다.
외세의 야합하여 종업논은 우리 공화국을 모해암살하고는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뜨우려고 미쳐달려는 호전광들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의 무리, 반통일대결집단이다.
지금 우리 경공업성의 전체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북남대결과 핵전쟁도발에 황창찬 피괴보수정부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절개성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통치체들이 우리의 아량과 신의를 뿌리치고 북남대결상태를 최대로 격화시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

통할수 없는 태도변화타령

통할수 없는 태도변화타령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등말에 발목까지 무장한 일제를 쳐물러치고 항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애 몰아넣은 영웅적인인이다.
백두의 천 출렁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묵힌 우리의 천만군민이 선군의 기치말에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괴롭힘살육을 물리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고 오늘을 강성대국건설에서 뒀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것을 과연 보거나 하는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평등말에 발목까지 무장한 일제를 쳐물러치고 항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애 몰아넣은 영웅적인인이다.
백두의 천 출렁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묵힌 우리의 천만군민이 선군의 기치말에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괴롭힘살육을 물리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고 오늘을 강성대국건설에서 뒀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것을 과연 보거나 하는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평등말에 발목까지 무장한 일제를 쳐물러치고 항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애 몰아넣은 영웅적인인이다.

침략전쟁연습책동을 단죄

침략전쟁연습책동을 단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기전보련대가 11월 2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피괴제2합대사령부 앞에서 공화국을 노린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남조선과 미국이 이날부터 조선해에서 미핵항공포합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방대한 최신풀기장비들을 동원하여 북침을 노린 연합훈련을 벌여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군사연습과정에 미 핵항공포합까지 밀려들게 되며 지어 해상군사본제선상가에서 실탄사격과 폭격훈련까지 벌여지게 된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최근 날로 험악해지고있는 정세속에서 이러한 군사연습을

림략전쟁연습책동을 단죄

림략전쟁연습책동을 단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기전보련대가 11월 2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피괴제2합대사령부 앞에서 공화국을 노린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남조선과 미국이 이날부터 조선해에서 미핵항공포합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방대한 최신풀기장비들을 동원하여 북침을 노린 연합훈련을 벌여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군사연습과정에 미 핵항공포합까지 밀려들게 되며 지어 해상군사본제선상가에서 실탄사격과 폭격훈련까지 벌여지게 된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최근 날로 험악해지고있는 정세속에서 이러한 군사연습을



미제와 피괴호전세력의 침략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초불집회

